

연중 제31주일

기도서 P. 471 C해

- 제1독서(지 서 11, 23-12, 3)
- 제2독서(테살후 1, 11-2, 2)
- 복 음(루 가 19, 1-10)

#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회  
 주간 조 성 호  
 편집 장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 론



## 無常을 넘어서

염 기 봉 신부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이 조락(凋落)의 계절인 십일월을 '위령의 달'로 정하고 모든 신자들에게 죽음을 묵상하도록 권하고 있다.

한 생물에 있어서 눈은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그런데 그 생리 모양들이 다양작색이다. 눈이 아주 작은 벌새의 눈이 있는가 하면 크기만 하고 볼풀이 없는 하마의 눈도 있다. 또 밤에만 보이는 부엉이의 눈과 마른 명태의 눈도 있다. 밝은 낮에도 땅속을 파는 두더지의 눈과 주로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개의 눈과 폐지의 눈도 있다. 그런가 하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의 눈도 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이라도 다 같은 것만은 아닌것 같다. 눈은 같은 눈이나 보고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다르고 한가지 물건이나 같은 일을 보기도 어떤 사람은 눈앞에 일단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먼 훗날의 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생각없이 그냥 보는 눈을 견(見)이라고 하고, 보기는 보지만 잘못 보는 눈을 사견(邪見)이라고 한다. 또 보기는 보지만 짧게 보는 눈을 단견(短見)이라고 한다. 또 마음의 눈을 동반하여 보는 눈을 관(觀)이라고 하고, 전체를 보면서 멀리 보는 눈을 안목(眼目)이라고 한다. 그리고 진리를 통찰하는 눈, 도인(道人)이 갖는 눈을 혜안(慧眼)이라 한다.

나는 나의 인생여정에서 어떤 눈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무 생각없이 그저 바라보며 사는 눈이 아닌가, 아니면 보기는 보지만 잘못 보고 사는 눈이 아닌가, 아니면 눈앞에 일단 생각하고 그저 되는데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풍만 주워먹는 까마귀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될 것이다.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하며, 영원한 피안의 세계에도 물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은 지상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뜻에서 사제들은 미사를 세번 봉헌하게 된다. 첫 미사 봉헌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고 둘째, 세째 미사 봉헌은 우리를 각각 「참된 안식」과 「참된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배우도록 초대한다. 우리는 지상을 걸어가 는 순례자들이다. 순례자들의 대 명제(命題), 그것은 「참된 행복」이며, 영원한 님을 만나 비움은 일이다.

(중앙 천주교회 보좌신부)



## 결심대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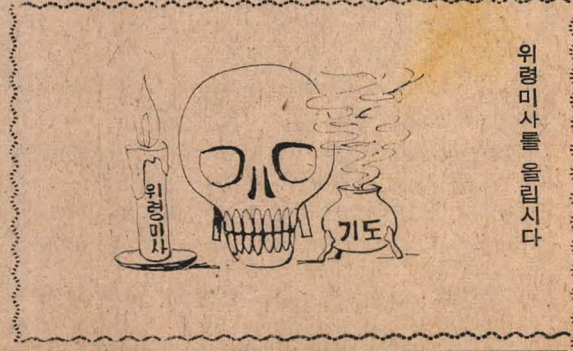
거두어 드리는 시월 상달이 다 지났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한 해의 밤풀림을 엮어내는 10월이 지났다. 10월은 문화의 달이라고 해서 갖가지 문화행사도 있었다. 역시 10월은 거두는 달이다. 노력한만큼을 거두어 내는 달이다. 정치적으로도, 10월유신 7년만에 10.26 사태를 경험한 것처럼, 무언가를 거두어 드리기도 했다.

이제 11월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죽음을 묵상하는 달이다. 죽음을 영원한 시작이다. 그 영원함은 어두움일 수도 있고, 환희의 밝음일 수도 있다. 죽음을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서술이 퍼터던 사람들이 늙음과 병마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가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의 발발로 맥없이 종말을 고하고 만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죽음에게는 손을 들어야 한다.

10월과 11월이 엇갈리는 이 때에, 한가지 더 생각해볼 것이 있다.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더 큰 힘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힘자라는데로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거둘 수 있겠다는 희망이, 때마침 10월 한파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지 않은가? 집을 덮치는 불기둥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던가? 왜 하필이면 10월 이변이었던가?

결혀헤지자. 비우자. 무릎을 꿇자. 그렇다고 무기력해지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느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나날을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말이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말고 매일 죽을 것처럼 살아가자는 것이다. 지금 당장 내놓을 결산서를 꾸려가는 자세로 살자는 것이다. 올바른 일인지의 여부를 따져 기도 전에 높은 자리라고, 돈이라고 결심대지 말자는 것이다.

## 숲 정이 산책



위령미사를 올립시다

<성당·성지 순례기>

### 루르드의 十字架 길 (3)

부주교 김 스테파노

### 테스의 양심

나 종 윤 (스테파노)

파티마에서 루르드 성지까지 가는데는 꼬박 2박 3일이 걸렸다.

포르투갈에서 불란서를 가기 위해서는 스페인을 거쳐 가야 하는데 스페인의 서울 마드리드까지 기차로 13시간을 달렸다면 얼마나 황망한 무인지경이였는가는 가이 짐작할 수 있으리라.

나는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독일과 스페인의 차이점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독일의 들판에서는 소가 파란 풀을 뜯어먹느라 바쁘는데 스페인의 소들은 밀대를 씹으며 한카로이 반추만을 하고 서 있더라.

대개 스페인 하면 황소와 싸우는 투우(鬪牛)의 장면과 기타치며 노래부르며 손뼉치며 플라멩고 춤추는 모습을 즉시 연상하게 된다.

나는 이곳에서 플라멩고 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양주 한잔에 취하였을인지 스스로 내가 국제 신사라는 자부심을 가져보았다.

나는 8월 15일 성모승천 축일미사를 불란서국경선에 인접한 산 세바스찬 성당에서 봉헌했다. 성모승천 축일은 세계 4대축일중 하나이지만, 이날 밤 11시까지 성당을 가득히 메워 미사 참례하는 이곳 신자들의 열심을 보고 스페인의 신앙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날을 경축하기 위하여 연발로 터트리는 불꽃놀이는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밤 하늘을 너무나 황홀케 하였다.

내가 루르드에 도착했을 때, 광장에서는 한창 솟불행렬이 진행중이었는데, 파티마에서 너무 감격해 버렸음인지 감격이 무디어 버렸나보다. 그런데 다음날 내가 마사비엘 동굴 앞에서 무릎꿇고 묵주의 기도를 바쳤던 바로 그 자리가 138년전 벨라멧따 성녀께서 처음 성모님을 목격했던 자리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무디어진 감격이 되살아나는것 같았다. 마사비엘 동굴 밑에서는 기적의 샘물이 솟아 흐르고 기적의 샘 윗 돌벽에는 병자들이 완치되어, 버리고 간 지팡이들이 즉-결려 있어 더욱 기적을 실감하게 하였다.

루르드 성지 구내에는 성당이 4개 있는데 그 중 지하 성당은 세계에서 제일 클 뿐만 아니라 역학적으로도 세계에서 제일 잘된 성당이라 한다. 이곳에서 국제미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얼마나 감사할 드렸는지 모른다.

나는 미사를 마치고 한국 수녀 두 분과 함께 루르드의 골고타 산 기슭을 찾았다. 대부분의 순례단들이 맨발로 무릎 꿇고 십자갈의 기도를 바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네 자신을 보고 울라"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심연에까지 닿는것 같았다.

영국의 작가 '토마스 하이다'는 그의 작품 '테스'에서 '순결한 여인'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이 소설의 주인공 '테스'는 순결을 잃은 여자다. 그러나 '테스'에게 순결한 여인이라고 부제를 달아준 것은, 속칭 '아타라시'가 아닌 여자에게 무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테스'에게 순결한 여인이라고 작가가 말한 것은, 순결을 잃고 그것을 고백해야 할지 안해야할지 고민하는 테스의 양심에 잠복, 테스에게 순결한 여인이라 했을 것이다.

잠깐 말을 바꾸어, 여자에게만 순결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여자 혼자서 어떻게 순결을 잃었는가?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남자가 있기 마련이다. 여자 하나가 순결을 잃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남자도 누군가는 순결을 잃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왜 여자의 순결만 따져야 하는가. 이점에서 남자는 치외법권적 존재인가? 그렇지않다. 하느님께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다. 열개의 계명을 주시면서, 두개의 계명...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을 이 문제에 할애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순결만을 논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요즘 세상에 '테스의 양심'은 죽은 것 같다. 순결을 잃어도 근심하는 기색은 추호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물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 실의와 좌절속에서 내일을 포기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지만, 잘못된 과거를 뒤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석자 베를 짜도 베를 버리기는 마찬가지다"며 "어차피 버린 몸"하며 덤벼드는 데는 기가 차다 못해 코가 자다.

언젠가 어느 정치인이 "떡을 만들다 보니, 손에 떡고물이 묻었다"며 자기의 과거를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말한 적이 있다. 굳이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누가 떡구 굽어먹게 될까 하라 했지 인질미를 하라 했나? 이 말이다.

10.26사태 이후, 어용교수, 어용노조등 '어용'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

진즉 물러나야 했지만, 이제라도 물러나야 한다. 현대 도둑놈이 순경 잡는 소리만 하고는 물러나질 않는다.

기름 말하지만, 이러한 운동을 나무랄게 아니라, 어용 인간은 테스의 양심으로 돌아가, 이 나라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자신과 국가와 겨레와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사는 길이란 것을 그들은 인지해야 한다.

(김계 천주교회)

#### 학 원 생 모 집

증장비 종합반(도차·포크렌·지게차·페로이다)  
자 동 차 운전(자가용·영업용·대형반)

매월 1일, 15일 개강 수시 접수. 대형코스 장거리 연습장 완비. 증장비반은 운전실기 연습으로 운전면허 취득, 자체장비로 수시로 실습함

#### 전주 새한 증장비 자동차 운전학원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 34-24 주 이언우(요한)  
전화 전주 ② 0073. (자) ③ 0591

####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버킹엄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학약국 옆  
전화 ② 4451 윌리안나

**입법** (378) 김병오



◎ 학용품 도매

**시 민 노트 사**

주문 배달해 드립니다

□ 신장 개업 안내

금·은·보석·시계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 (방지거)

전주 남문옆 (대지여관 입구)

전화 ④4989 (사구팔구) ④4988

맛의 전당

**로타리 시식코너**

(풍년제과 맞은편)

한식·경양식·분식·중화식·  
튀김·주류

단체손님환영, 피로연, 회갑연,  
약의도시락 환영 전화 ③ 6710

대표 이 승 준 (방지거)

**전주 토용 개점**

토용(土龍)은 약이 아니라 고영양 식품입니다.

그 복용자들로부터 그 효과가 신비의 영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래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알리고 권하고자 전주에도 분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관 성 베네딕도 수도원 최로렌조 수사님께서 개발하여 연구실험한 결과입니다.

적응증: 모든 간질환, 부인병, 저혈압, 폐결핵, 원기쇠약, 각종 난치병

전주 성모병원 3층 (322호)

전화 ② 2301

유석중(스페파노) 오예환(바오로)

<수시 접수> 매월 1일 개강!

**주산·부가·타자**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유치반(6세) 개설

김제읍 요촌리 156-15  
(고속버스터미널 앞)

관인 제 일 경 리 학 원

김 제 원장 김유근(요한) ☎ 2953

★ 양심을 찾자 ★

현대 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이리 중앙칼라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나공열 신부 국제 가톨릭 방송인 회의 참석(필리핀)...11월 4일(화)~12일(토)
  2. 제 2 지구 학생 연합미사...9일(일) 오후 3시, 둔율동 성당에서
  3. 치명탈 원고모집...11월 3일(월)~12월 5일(금)까지, 대상-중·고등학생 신자 및 예비신자 원고-시, 수필, 감상문, 기행문, 탐방기, 서간문, 일기문 등 보내실 곳-520 전주시 서노중동 601번지 가톨릭 센터내 중·고등학생 연합회 앞  
※ 치명탈 원고 자료 모집에 교구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4. 2 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모임...일시-11월 8일 오후 4시, 장소-대야성당
  5. 꼬미시움 창립 25주년 행사 81년 5월로 연기...기타 세부사항 중전 계획대로 추진 바람
- 문학강좌 안내...11월 15일(토)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강사-백낙청 서울대 교수, 주제-문학과 과학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보좌 사도 회장  
신부 신부 보좌 사도 회장  
문 정 박 김  
정 기 성 병  
기 성 병 구

1. 프란치스코 3 회: 오후 2시, 강당
  2. 사도회 상임위원회: 1일, 오후 8시  
사도회 월례회-6일 오후 8시, 인성회-3일 오후 8시
  3. 어머니성가대 월례회: 6일 오전 10시 30분
  4. 성심부녀회 월례회: 7일 어머니미사 후
  5. 가정방문: 교사동-4일·5일, 경원동-6·7·8일, 태평1동-11일부터(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그외는 오전 9시부터)
  6. 병자방문: 4일(화) 오전 10시
  7. 특별강연: 가난한 자들의 대변인(애언자) 2일(일) 저녁미사 후
  8.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교리와 미사에 꼭 보내주세요, 1주일의 기도생활 협조 바람
  9. 고등학생회 체육대회: 2일(일) 해성학교, 오전 10시 전원 참석 바람
  10. 감사예물: 교사동, 한리디아 5,000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29,362원

(노충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보좌 사도 회장  
신부 신부 보좌 사도 회장  
김 정 원 박 중 근  
정 원 박 중 근

1. 제 2 차 설서강의 수강생 모집: 제 1 차 설서강의가 신·구약을 포함하여 11월 4일부터 끝을 맺게 됩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 2 차 설서강의가 11월 10부터 매주(월·화)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애령회 월례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3. 수녀님들을 위한 설서특강: 매주(월) 오후 2시~4시
  4.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 예레미야에서 애가서까지
  5.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제 10 차 성령세미나를 받으실분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09,876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보좌 사도 회장  
신부 신부 보좌 사도 회장  
서 석 기 조 정 양 삼 열  
조 정 양 삼 열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각 분과 위원님들은 빠짐없이 참석 바람
  2. 유아세례: 7일 오전 10시, 사무실에 신청 바람
  3. 성지순례: 12일 경기도 광주 천진암 회비-5,000원, 점심준비, 성모회 주관 사무실에 신청 바람. 선착순 40명
  4. 예비자교리: 매주일 오전 11시-보좌신부님 재벨라렛다
  5. 감사합니다: 제대꽃 기증-최엘리스벳, 초-장테레사
  6. 전 애령회장 이규언(베네딕도) 선종 애령회원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13,47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보좌 사도 회장  
신부 신부 보좌 사도 회장  
김 종 김 조 영 성 태 범 영 배 호  
조 영 성 태 범 영 배 호

1. 11월은 위령성월
2. 가정방문: 4일-완산동, 5일-화산동, 6일-태평동 1·2반, 7일-태평동 3·4반, 10일-태평동 5반, 11일-태평동 6·7반, 13일-진북1·2반, 14일-진북3·4반
3. 부녀회 월례회: 5일(수) 오전 10시 부녀회원들 빠짐없이 나오세요
4.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일중음, 이갑진씨 형제덕)
5. 봉헌금 미수 완납합니다
  6. 어머니성가대 성가연습: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김동중 신부님 지도)
  7. 주일학교: 주일 오후 2시, 미사 3시 어린이들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231,57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사도 회장  
신부 신부 사도 회장  
김 병 환 한 혈 수  
김 병 환 한 혈 수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매월 첫째 주일
  3. 반장님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축! 평화의모후 발족: 첫회합(다음주 목요일 13일) 단장-윤안나, 부단장-이세시리아
  5. 다음주 전례담당: 신자들의 기도-차상렬 독서-① 박형식 ② 김태수
- 지난주 봉헌금: 139,950원 교무금: 74,000원

(숲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사도 회장  
신부 신부 사도 회장  
이 대 권 이 갑 노  
이 대 권 이 갑 노

1. 11월은 위령성월: 우리보다 먼저가신 선령들을 위하여 영적 물적 예물로 정성껏 보답합니다
  2. 모든 성인의 날: 11월 1일, 위령의날-11월 2일 주일
  3. 사도회 월례회·신협미사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주일학교 후원회 야의 친목회: 11월 4일 (※ 8시차 7시 30분까지 버스터미널에 집합)
  5. 신축기금 내주신 분: 이막내(1만원)
  6. 예비자교리: 수요일 저녁 7시, 주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71,835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보좌 사도 회장  
신부 신부 보좌 사도 회장  
김 병 유 김 기 석 중 수  
김 병 유 김 기 석 중 수

1. 유아세례: 9시미사 후
  2. 사도회: 공식미사 후
  3. 대학생회: 공식미사 후, 사재금 3층
  4. 모든 신심단체는 오늘(2일) 사도회 월례회까지 81년도 예산 작성 보고할 것
  5.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 7시
  6. 예비자 교리시간 변경: 7시 30분
  7. 가정방문 실시: 4일부터 4일~7일-동완산·서완산동, 11월~14일-동교동, 18~21일-동남·경원동, 12월2~5일-전동·중앙동·다가동, 9일~12일-남노충동·서교동
  8. 오늘의 전례담당(2일) 아침미사: 사희자-이신홍, 독서-①최병래 ②박중구 공식미사: 사희자-서정옥, 독서-①이덕수 ②고수창 저녁미사: 사희자-경양수, 독서-①이승호 ②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310,32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사도 회장  
신부 신부 사도 회장  
김 영 일 채 수 현  
김 영 일 채 수 현

1. 사도회 월례회: 오늘밤 7시 30분 미사후
  2. 천진암 성지순례 무사히 참배하였습니다
  3. 가정방문: 효자아파트 2단지-11월 5일, 신촌주택-11월 7일 오후
  4. 수녀원 신축금 십입하신 분들 김승희·이유희(각 1만원), 강덕자(2만원) 조창환(10만원)
- 지난주 봉헌금: 90,180원 교무금: 159,000원 어린이헌금: 2,515원